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지리수업 채나미(충북 동성고등학교)

OECD(2018)에서는 웰빙(Well-being)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복과 건강,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계획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변화가 웰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모든 학생들은 개인의 전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지구의 웰빙에 기반한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실의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리수업으로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 리빙랩 프로젝트(living lab project)

리빙랩이란 2004년 미국 MIT의 Williams J.Mitchell교수가 처음 제시하였으며 실생활(living)을 실험실(lab)로 보고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동성고에서는 지리, 역사, 과학 교사가 함께 2023년에 시도하였다. 약 6개월 동안(5~10월)에 걸쳐 정규수업이 끝난 후 매주 방과후 시간과 여름방학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가 사는 지역(충북 음성군, 진천군)의 현안문제를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토의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으로서의 학생들의 경험과 지역뉴스 스크랩을 토대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도출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와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교실 안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이 교실 밖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충북혁신도시의 교통문제와 해결방안, 쓰레기 불법투기문제, 우리고장의 수질문제,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개발가능성과 같은 주제를 도출하고 탐구하였다. 터미널의 무인 시스템(키오스크)사용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령층을 인터뷰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노선과 배차시간의 부족함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지역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윤리적 접근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방안’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팀은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직접 현장 조사하여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 종류와 불법투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지도화함으로써 쓰레기 투기 장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통해 쓰레기 종류와 장소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행정기관에 근거로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또 다른 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구 증가에 기인한 육식식생활의 증가가 가축 사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에 분포한 축산농가로 인해 악취 및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 지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생겼다는 정보를 얻어 직접 가축분뇨 처리장을 현장답사 하였다.

가축분뇨처리장은 매일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을 반입받아 통합처리하고, 이를 액체비료로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

오 가 스 는 전 기 에 너 지 로 전 환 해 사 용 하 고 동 절 기 에 는 인 접 농 가 시 설 에 난 방 용 온 수 를 공 급 하 여 지 역 농 가 의 난 방 비 부 담 을 덜 어 주 고 있 었 다 . 더 나 아 가 이 렇 게 만 들 어 진 액 체 비 료 는 주 변 농 가 에 무 료 로 배 포 하 여 지 역 사 회 가 함 께 발 전 하 는 상 생 의 가 치 를 실 현 하 고 있 었 다 .

이 처 럼 배 움 의 과 정 을 통 해 학 생 들 은 자 신 의 삶 이 펼 쳐 지 는 마 을 과 지 역 공 동 체 의 소 중 함 을 느 끼 고 , 우 리 사 회 의 지 속 가 능 성 에 대 해 질 문 하 며 실 천 하 는 힘 을 기 를 수 있 었 다 .

Ⅱ . 웰빙을 위한 우리지역 기후위기 극복하기

기 후 변 화 에 대 응 하 기 위 해 지 리 교 과 뿐 만 아 니 라 학 교 의 다 양 한 교 과 선 생 님 들 을 설 득 하 고 합 의 를 도 출 하 는 과 정 을 거 쳤 다 . 그 결 과 , 리 빙 랩 프 로젝 트 의 일 환 으 로 ‘우 리 지 역 기 후 위 기 극 복 하 기 ’를 주 제 로 2024년 프 로젝 트 를 진 행 하 였 다 . 기 후 위 기 와 교 과 의 핵 심 개 념 을 융 합 하 여 프 로젝 트 세 부 주 제 를 다 양 하 게 정 했 고 , 참 가 를 희 망 하 는 학 생 들 을 별 도 로 모 집 했 다 .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 지 역 발 전 모 델 만 들 기 (지 리) , 스 마 트 기 술 과 기 후 위 기 (과 학) ,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 정 치 와 경 제 (일 반 사 회) , 기 후 위 기 와 지 능 정 보 기 술 (수 학) , 기 후 위 기 와 건 강 (보 건) , 기 후 위 기 에 대 처 하 는 예 술 (미 술)’은 기 후 위 기 와 교 과 를 융 합 하 여 선 정 한 프 로젝 트 6개 의 세 부 주 제 였 다 .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 지 역 발 전 모 델 만 들 기 ’를 주 제 로 프 로젝 트 를 진 행 한 팀 은 폭 염 과 함 께 폭 설 , 태 풍 , 호 우 등 로 인 해 발 생 하 는 농 작 물 의 피 해 규 모 를 통 해 이 상 기 후 가 실 제 로 지 역 의 농 업 에 어 떤 영 향 을 미 쳤 는 지 조 사 하 기 위 해 학 교 주 변 지 역 의 수 박 , 딸 기 , 복 송 아 농 가 를 방 문 하 여 인 터 뷰 하 며

이 상 기 후 로 어 려 움 을 겪 는 농 가 의 심 각 한
피 해 상 황 을 학 생 들 이 깊 이 공 감 할 수 있 었
다 . 이 들 은 해 결 방 안 으 로 기 상 재 해 를 정 확
히 예 측 하 여 피 해 를 줄 이 는 스 마 트 기 술 이
농 가 에 보 급 될 수 있 어 야 한 다 고 주 장 하 며
농 업 분 야 에 서 의 이 상 기 후 로 인 한 피 해 는
‘적 응’하 고 ‘대 비’해 야 한 다 고 결 론 내 렸 다 .
농 가 에 서 시 작 된 피 해 는 고 스 란 히 우리 의
밥 상 에 영 향 을 미 칠 수 있 음 을 깨 닫 게 되 는
뜻 깊 은 주 제 였 다 .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진천군, 음성군)이 특히 미세먼지, 황
사와 같은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며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우리 지역의 대
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해결 방안’을 주 제
로 보건 동아리 학생들이 보건 교과 교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충북 지역은 분지형 지역으로 중국과 수도
권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정체되기 쉬운 지형적 특징을 지녔음을 알
게 되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제로
바람길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토
대로 우리 지역도 바람길을 조성하여 산지
에서 생성된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도시
로 유입되도록 만들어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적인 수단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결국,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화력발전
소와 공장 가동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및 미
세먼지 배출이 원인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 동
아리 학생들은 교내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
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홍보물을 게시하여 캠페인을 진행
했지만, 목표로 삼았던 지역 보건소와 협력
을 진행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워했다.

Ⅲ. 지역 사회를 바꾸는 지리 교육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개인의 생존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리교육은 학생과 밀접한 지역사회로 연구 스케일을 한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학교에서 시행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 및 진로 관련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문제 해결능력과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신장하였다.

이러한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당면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개인의 웰빙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지구촌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역량을 키우는데 지리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한 국가의 장소의 시민으로서만 머무르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부터 국제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공동체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지닌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의 웰빙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모두의 웰빙을 추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르는 지리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앞으로 각 지역에 많아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Publishing.

個人と共同体のウェルビーイングを追求する地理授業：ライフのための学校づくり
チェ・ナミ（忠清北道ドンソン高等学校）

OECD（2018）は、「ウェルビーイング」（Well-being）を地域社会構成員の幸福と健康，環境を考える行動計画である定義している。これに従うと地域社会の変化は，ウェルビーイングに寄与する。すべての学生は，全人的成長に基づいて自分の可能性を発揮し，個人だけでなく，共同体や地球のウェルビーイングに基づいた共同の未来を創造するために貢献すべきである。

本稿は，韓国のドンソン高等学校が2023年から実施したリビングラボ・プロジェクト（Living Lab Project）の実践について報告し，地域社会の持続可能性と学習者のウェルビーイングに貢献する地理教育の本質的価値を探る。リビングラボは，実生活を実験室と定め，ユーザーと専門家が協働して地域課題を解決するプロジェクトである。

2023年のプロジェクトで生徒がブレインストーミングや地域ニュースの分析を通じ，交通弱者の移動権保障，ごみのポイ捨て問題，家畜排泄物を利用したバイオガス発電など，具体的な地域問題について探究した。特に生徒は，家畜排泄物処理場へのフィールドワークを通じて，家畜排泄物を用いて液肥とバイオガスを生産し地域農家へ供給しているという地域共生の事例を深く理解した。これらのプロジェクト遂行を通して生徒は，地域共同体への理解を深くし，持続可能性についての実践力を身につけた。2024年は，他教科と連携した「地域気候危機を乗り越えよう」プロジェクトを実施し，気候変動による農作物被害の農家へインタビューや，大気汚染を改善するための風の道について探究し，その具体的な案を提案した。

これらの活動を通じ，地理教育は，生徒が

地域スケールから気候危機といったグローバルスケールの課題まで参加する世界市民へと成長するための基盤となる教育といえる。

(翻 訳 : Y a n g J a Y e o n)